

지원 끊기면 ‘풀썩’... 홀로 못서는 마을기업

도내 마을기업 34곳... 2010년 육성 시작 후 매년 증가
사업 초기 보조금 끊기면 경영난 등 한계 직면하기도
일부는 사실상 휴업 상태... 서귀포시 실태조사 나서

제주지역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마을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마을기업’의 생태계 육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꾸준한 매출로 자리잡아가며 행정안전부의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 지원이 끊긴 후 경영난에 봉착해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는 곳들이 적잖아서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의 자립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뒷받침과 역량있는 리더 육성,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마을기업은 34곳으로 제주시 지역에 19곳, 서귀포시에 15곳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집중 육성하기 시작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판매나 체험프로그램 등 주민 주도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 시군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제주에서는 2010년 2곳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곳, 2012년 7곳, 2013년 9곳, 2014년 2곳, 2015년 2곳, 2017년 4곳, 2018년 2곳, 올해 2곳이 신규 선정되는 등 해마다 수를 늘려왔다.

행안부 공모를 거쳐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1차년도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지정되면 3000만원, 3차로 지정될 경우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20%다. 또 행정에선 자립을 돕기 위한 경영컨설팅도 실시한다.

서귀포시 지역 마을기업의 경우 15곳 중 재지정 기업은 6곳으로 절반에 못미치고, 1곳이 3차(고도화) 지원을 받았다. 또 4곳은 행안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반면 지난해 실시한 컨설팅에서는 영업 중단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업도 일부 확인됐다. 15곳 중 5곳은 고용인원이 1명 뿐이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3곳, 서귀포시에서 1곳이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 마을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을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

이 직접 경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신규 소비층 확보 등 어려운 점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1차로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과 고용인원, 보조금 현황을 조사중이다. 또 1차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 등 휴·폐업 의심 기업에 대한 6월까지 2차조사 예정인데,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적이 없는 기업은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마을기업 관계자는 “제품이 판매되고 일정 매출이 발생해야 지속가능한데, 기존 시장 제품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최대 어려움”이라며 “1사1기업 결연이나 경제단체 등과의 연계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 22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JDC ‘남그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랩의 첫 회로 ‘디자인생각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JDC 제공

“사회적경제 활성화 머리 맞대요”

JDC, 교육·워크숍 등 지원
주민·소셜벤처 네트워킹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남그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랩을 운영한다. 첫 회로 ‘디자인생각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디자인 생깁 (Design Thinking)이란 사람과 사람 행동에 대한 공감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대상자 입장에서 피드백을 나눠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이다.

JDC는 제주 지역 주민, 소셜벤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남그늘 SDGs 랩 운영을 통해 제주 지역 내 사회 이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제주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JDC 제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지원사업 ‘남그늘’은 제주혁신성장센터 1층에 위치해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교육·워크숍,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과 맞춤형 판로지원 등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6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2017년부터 총 12개 기업의 지원했다.

또 실질적인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 마을을 선정해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문대림 JDC이사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하원마을 4·3희생자 위령제

제주4·3하원마을유족회(회장 김재하)는 24일 옛탐라대학교 인근 제2산록도로 하원마을공동목장에 자리한 제주4·3 하원마을 희생자 위령제단에서 하원마을 4·3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에는 제주4·3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 유족,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재하 회장은 “71년 전 무장비습격으로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위령제를 봉행하니, 그날의 억울함과 노여움, 한을 풀고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하원마을은 4·3 당시 군경과 무장대에 의해 60여명이 사망하고 가옥 104동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태윤기자



24일 제주4·3 하원마을 희생자 위령제단에서 열린 하원마을 4·3희생자 위령제에서 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골칫거리’ 영농 폐비닐 감소 효과 볼까

미생물 분해 멸칭비닐 이용
농기센터, 단호박 재배 시험

생분해성 멸칭비닐 사용으로 농촌환경 오염원인 폐비닐 처리문제 해결 및 수거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애월지역 단호박 재배 10농가 대상으로 생분해성 멸칭비닐 이용 단호박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에서 멸칭비닐은 잡초 생육억

제, 수분조절, 지온상승, 수확량 증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농자재이나 흙속에 묻혀 있거나 토양표면에 영겨 붙은 비닐은 수확 후 수거하는데 어려움과 토양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실증시험은 환경오염이 없는 생분해성 멸칭비닐 보급으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수거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생분해성 멸칭비닐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와 변성전분 등이 주성분으로 농작물 수확 후 토터리 작업에 의한 분쇄과정을 거쳐 토양속에 매립함으로써 자연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가스로 분해가 이뤄지는 천연소재이다.

고대리기자

가파도·마라도 어항정비사업 ‘시동’

서귀포시 올해 8억여원 투입

서귀포시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18~2027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8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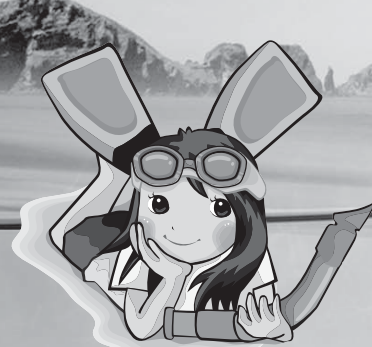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특산물판매장, 가공기술교육 등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분야 ▷올레길과

탐방로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이다.

올해는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에 7억4200만원, 마라도 복지회관과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1억25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 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한 공사(설계)발주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해 실시 설계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2019 제주바다사랑 그림 사진 공모전

제주매일은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9 제주바다사랑 공모전’을 엮는다. 아름다운 제주바다 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이번 공모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공모기간 3월15일 ~ 5월 10일

1 공모요강

- 주 제 :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 (아름다운 경관, 바다환경 훼손 현장 등 제주 바다와 관련된 주제)
- 공모기간 : 2019년 3월 15일 ~ 5월 10일 18:00까지
- 응모자격 : 누구나 가능
- 출 품 수 : 그림부문-1인당 1매
사진부문-1인당 3점 이내(중복 수상 불가)
- 사진규격 : 개별용량 2MB 이상, 3,000pixel 이상 원본 사진(JPG파일)
- 출 품 료 : 없음
- 발 표 : 2019년 5월 중 개별통지 및 제주매일 지면

2 공모분야

구 분	그림부문 초등부	사진부문 일반부
대 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구 격	초등학교 저학년 : 8절지 초등학교 고학년 : 4절지	개별용량 2mb 이상 원본사진 3000pixel이상(jpg)

4 시상내역

구분	시 상 내 역		수상수 그림부문 사진부문
	그림부문	사진부문	
대 상	상장 및 부성(3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성(70만원 상당)	1명 1명
최우수상	상장 및 부성(2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성(50만원 상당)	4명 2명
우 수 상	상장 및 부성(1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성(30만원 상당)	6명 3명
장 러 상	상장 및 부성(5만원 상당)	상장 및 부성(20만원 상당)	12명 5명
입 선 상	-	상장 및 부성(5만원 상당)	- 40명

※수상작은 제주바다사랑 공모전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될 예정.

3 접수안내

- ▲ 그림부문
작품 뒷면에 제목, 그림날짜, 이름, 연락처 기재 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사진부문
제주매일 홈페이지(www.jejumaeil.net)에서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해 직접 온라인 접수
-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37 제주매일 사업본부
- ▲ E-mail : abcd@jejumaeil.net ▲ 문의 : 064-747-8111

